

12/11/22

설교 제목: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6 장 1-33 절

(요 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 16: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16: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 16: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절판주** 요 13:36, 요 14:5

(요 16: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 16: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10)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16:11)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 16:12)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13)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4)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5)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6)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 (요 16:17)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 (요 16:18)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 (요 16:19)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 (요 16:20)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 (요 16:21)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 (요 16:22)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 (요 16:23)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요 16:24)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요 16:25)○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 (요 16:26)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 (요 16:27)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 (요 16:28)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 (요 16:29)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 (요 16:30)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 (요 16:31)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요 16:32)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 16:33)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떠나갈 것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의 떠나감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그들이 이같은 일을 당했을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요 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과 그 박해로 인해 실족할 위기를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고, 사자 굴에 던져지고 불에 살라지기도 했으며, 가죽이 벗겨져
죽거나 심지어 톱에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출교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갔고 또 다른 일부 교인들도 그럴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 16: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당신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그러나 이제 당신이 떠나면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다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6: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떠나가는 문제로 너희들이 근심하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6: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요 16: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 16: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데 반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10)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16:11)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할 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며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는 커녕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를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 대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할 때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의 심판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심으로 확증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스스로 세워놓은 의의 규범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완전한 의를 따라 살도록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의 심판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심판을 확증함으로써 사단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심판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유익한 또 다른 이유로 그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으며, 보혜사 성령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더욱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 16: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요 16: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요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 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나아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면 제자들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눈치를 보며 겨우 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 계집종의 “저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처음에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 놓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 곧 말세지말입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출교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일부 유대인들과 같이 배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어 이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